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4차 공식협상 개최

- 6.14.(일) ~ 19.(금), 방글라데시 다카,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등 11개 분과 -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유망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 협상이 6.14(일)~19(금)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다.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박근오 통상협정 정책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협정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4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세 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등 11개 분야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 타결의 기반을 최대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글라데시는 1억 7천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서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성장시장이다.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시 우리 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전력·도로·항공 등 국가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는 '26년 11월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RCEP 가입,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방글라데시는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서남아의 핵심시장으로,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 시 우리 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협상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정교섭관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830)
	통상협정협상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044-203-5837)